

사회

제1순환도로·터미널~무진로~양산지구

버스 중앙차로 추진

광주시 타당성 조사... 사업비 600~700억 예상

제1순환도로와 서구 광천동 버스 종합터미널~무진로~광산구 양산지구 등 광주시내 주요 도로 중앙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당 도로는 관계 별은 왕복 6~10차선으로 좋은 여건을 갖춰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설될 경우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편리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30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광역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 기초조사 용역'을 통과시켰다. 다음달 중 3억5천만원의 들여 발주될 이 용역에서는 제1순환도로와 버스종합터미널~무진로~양산지구 등 2개 구간 30.56km의 중앙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할 경우 통행량 변화와 교통흐름 등을 집중조사·분석하게 된다.

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광주시 광산구 수암지구 내 임방울대로 2.7km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한 바 있으나 다른 도로와 연계성이 떨어진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우선검토구간



어진다 구간이 짧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내 도로의 핵심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할 경우 불법 주정차나 도로 혼잡 등을 피해 시내버스가 주행할 수 있게 되며, 그에 따라 도시철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가 한층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도로 중앙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데 600억~7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

지만 국고 지원 비율이 50%에 불과한 만큼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초에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서울에서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지만, 광주와 서울은 교통여건이 크게 다르며, 과연 그 만큼의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 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 광역시와 보조를 맞춰 국비 지원액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994년 5월부터 대남로와 상무로 등 모두 8개 노선(47.2km)에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5시30분~오후 7시30분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최완석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로는 시내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등 투자를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담양군청에 2~3억 돈 상자 배달 '소동'

"장학금으로 써달라" 쪽지... 처리방안 논의

'억대' 돈이 들어있는 상자가 30일 담양군청에 배달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담양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담양군청 행정과 사무실에 방울토마토 10kg들이 상자가 택배로 배달됐다.

이 상자에는 '담양소방대 자녀

장학금으로 써달라'는 내용의 쪽지와 5만원 권, 1만원 권 지폐 묶음이 담긴 은행 봉투가 수십 개 들어 있었다. 보낸 사람란에는 'OO서점 김OO'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군은 상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이 돈의 순수성이

의심돼 경찰관 입회하에 군 농업 금고에 보관하고 31일 오전 담양군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예수를 정확히 세지는 못했지만 2억~3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순수한 의도의 돈이라면 독지가의 뜻대로 좋은 곳에 쓰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



23년 만에 간첩의 누명을 벗은 김양기씨(59·가운데)씨가 30일 광주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부인 김희유(54)씨를 다독이며 위로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간첩 누명 김양기씨 23년만에 무죄

"우리 사회·수사기관 투명해져야"

광주고법 "사법부 과오 크다" 사과

"23년간에 걸친 '무죄' 호소에 대해 누구도 귀기울여 듣지 않았습다. 이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우리 사회가 스스로 투명해져야 합니다."

군사정부 시절 조작된 간첩사건의 피해자 김양기(59)씨는 30일 법원이 23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자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목청껏 '만세'를 외쳤다.

김씨는 "보안대 지하실에서 나온 이후 우리 사회가 '진실'을 밝히기까지 무려 23년 5개월이 걸렸다"며 "수사기관이 과거처럼 조작이나 고문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투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반공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에 대한 수사는 감금상태에서 가혹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뤄진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검찰과 원심법정이 '과장된 진술'을 그대로 믿은 것이어서 증명력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간첩으로 낙인찍힌 김씨가 그동안 겪었을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러 정황과 증언을 종합해 볼 때 공익의 대변인인 검찰과 법원까지

도 공허한 증거가 만들어낸 허상만을 믿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6년 2월 21일 제일공작지도원 검찰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91년 가석방됐다.

이후 군과 과거사위는 "수사 당국이 갖은 구타와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냈을 개연성이 높다"고 결론냈고, 진실화해위원회도 법원에 재심을 권고했다.

김씨는 "앞으로는 나처럼 누명을 쓰고 고생하면서도 아직 입을 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7869) 김장두



하고 30대 사장 앞에서 음독

해고 통보를 받은 30대 근로자가 회사를 찾아가 대표이사가 보는 앞에서 음독자살했다.

나주경찰에 따르면 29일 오후 나주시 모 목재가공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홍모(37)씨가 독극물이 든 생수를 마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회사 대표이사는 "홍씨가 '사표를 내려 왔다'고 말할 땐 생수를 마시고 곧바로 쓰러졌다"고 진술했다. 홍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부터 이 공장에서 목재 절단 보조를 일했으나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난폭운전' 대리운전 기사 폭행

○...광주서부경찰은 30일 난폭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를 때린 이모(45·광주시 서구 풍암동)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이씨는 이날 새벽 0시20분께 광주시 서구 모 횡집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대리운전 기사 김모(44)씨의 머리 등을 때린 혐의.

○...경찰에서 이씨는 "김씨가 과속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자 천천히 가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기본 나쁘게 대꾸하자 화가 났었다"고 진술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Aielisya) eye clinic, featuring a large eye graphic and contact information: 010-671-1199.

Advertisement for '메트콤 국제결혼' (Metcom International Marriage), featuring photos of couples and contact information: 062)232-8966, 010-0200-8888.